원더걸스의 예은이는 잊어라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일 금요일 제3327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5일 휴식 3일 등판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왼쪽)와 영화 '명량'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여름 극장가 '토종' 전성시대

"상반기 성적 부진 씻자"… 빅4 흥행 대결 불붙어

관객 2억명 시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올 상반기 한국영화의 성적은 초라했다. 기대작들의 연이은 흥행 부진으로 관객 점유율은 5년 만의 최저치인 43.6%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극장가에 대작들의 흥행 대결이 치열하다. 4대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의 다양한 색깔이 녹아든 작품들의 등장으로 관객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다.

◆ '군도' '명량' 신기록 경쟁

한국영화 선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지난달 23일 개봉한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 감독 윤종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로 전국 472만 관객을 동원했던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 콤비의 신작이자 강동원의 제대 후 첫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기대에 부응하듯 '군도'는 개봉 첫날 55만1290명을 동원해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을 세웠다. 개봉 48시간만에 100만 관객을 모았으며 4일 만에 200만,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군도'가 포문을 연 여름 극장가는 '명량'(감독 김한민)의 등장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명량'은 개봉 첫 날 68만316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군도'가 세운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을 1주일 만에 갈아치웠다. 이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세운 역대 평일 최고 스코어도 넘어선 기록이다.

또한 개봉 37시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군도'보다 빠른 속도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예매율도 61.4%(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왼쪽)과 영화 '해무'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제공

군도 5일만에 300만 돌파
명량 첫날 68만명…신기록
해적 코미디 소재로 기대
해무 인간성 조명 드라마

◆ 장르별 '해적' '해무' 가세

한국영화의 선전은 8월까지 이어진다. 코미디를 내세운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해무'(감독 심성보)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6일 개봉하는 '해적'은 올 여름 한국영화 흥행 대작들 중 유일한 코미디라는 점에서 다크호스로 꼽힌다. 최근 열린 언론시사회에서는 극중 해적 출신 산적 철봉을 연기한 배우 유해진의 코믹 연기가 좋은 평가를 얻었다. 손예진의 첫 액션 도전도 관전 포인트다.

13일에는 '해무'가 개봉한다. '살인의 추억'에서 감독과 각본으로 만났던 봉준호-심성보 콤비가 이번에는 제작자-감독으로 다시 만났다. 밀항에 나선 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보여주는 갈등을 심도있게 파고들었다.

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은 관객에게는 행복한 선택의 고민이다. 영화 관계자들도 한국영화의 흥행 대결이 상반기의 부진 타개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임성규 홍보팀장은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의 각각의 장점이 뚜렷한 영화들이 다양하게 나와 관객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군도'와 '명량'이 만든 긍정적인 분위기가 8월에도 계속돼 '해적'을 비롯한 다른 작품들에도 많은 관객이 몰릴 것 같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작품들이 고루 흥행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도 찜통 더위"

주말엔 태풍…전국 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31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주, 경산 등 일부 지역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은 34.0도까지 올랐고 인천은 32.6도, 경기도 수원 32.2도, 공주 35.5도, 대구 37.1도 등을 기록했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이날 오후 3시 8분 39.6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았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는 1일까지 이어지다가 2일 오전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12호 태풍 '나크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제주 해상을 거쳐 서해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일 낮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또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illegible]기자

서울 명예시민증 받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3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TV·DTI 효과 맹신 말아야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효과를 논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일단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의가 늘고 호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별 반응이 없고, 강남권 역시 호가만 오를 뿐 이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DTI 규제 완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거래수요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호가만 오르고 정작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은 외면하는 모습이다.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오른 가격에도 매수세가 붙었겠지만 수요자들이 먼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면 돈줄을 풀더라도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풀린 돈은 어떻게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부작용은 정부가 그린 시나리오가 아닐 터다.

이제 DTI·LTV는 완화하기로 했고, 분명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하겠다.

'평형수 민심' 새누리당으로

野 전략공천 악수 '참패'… 與 국가 개혁·경제 활성화 탄력

Issue & View
7·30 재보선

/조현정기자 hjh@metroseoul.co.kr

7·30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 수원을, 수원병, 경기 평택, 경기 김포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곳을 제외하고 싹쓸이 했다. 전체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11석을 차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제1야당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 의제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에 민심이 싸늘한 회초리를 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일꾼론 vs 세월호 심판론

새누리당에는 원내 과반 의석을 사수할 수 있는 4석에 1~2석만 더 건지는 게 목표라고 할 만큼 위기감이 감돌았다. '힘 있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정 운영 안정론을 들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7월 초만 해도 분위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쏠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압승을 기대했지만 전략공천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곳에 신청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리면서 선거 상황은 완연하게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권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남편의 재산 축소 탈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늘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지난달 22일 뒤늦게 발견되면서 또 다시 반전이 시작됐다.

수사 당국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나고 수사 부실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여권이 궁지에 몰렸다. 야당은 '세월호 책임론'에 다시 화력을 집중했다. 또 같은달 24일 서울 동작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자 극적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다.

◆ 與, 국정 운영 동력 얻어

새누리당은 158석으로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선거에서 강조한 대로 안정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힘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또 숫자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누르며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김무성호(號)는 순풍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독주할 경우 야당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세월호 국조특위 운영이 되레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미다.

이정현 작은 확성기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대이변을 일으키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이 31일 오전 순천시 역전시장을 자전거로 돌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확성기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선 참패' 김한길·안철수 동반 퇴진

최고위원들도 총사퇴 손학규, 정계 은퇴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최고위원단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의결했다.

두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하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김·안 투톱 체제'는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 여만에 끝나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선거참패 충격에 휩싸인 당을 추스르고 재건 작업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수원 병(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정부, 현정은 회장 금강산 방문 승인

● 정부가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금강산 방문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31일 "정부는 현대아산이 고 정몽헌 회장 11주기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신청해 오늘 이를 승인했다"며 "정부는 순수 추모 행사 차원의 방문인 만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도 매년 이를 승인해왔다"고 밝혔다.

윤상현 "소임 다했다"…사무총장 사의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최선을 다했고 소임을 다했다"며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 사무총장직을 맡으며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의 공천 작업 등을 진두지휘해 왔다.

외교부, 필리핀 세부에 분관 개설키로

● 외교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세부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분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세부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40만명 정도로 최근 들어 세부 내에서 강력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21건의 살인 사건 중 8건이 세부에서 발생했다.

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 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윤다혜기자 yth@metroseoul.co.kr

얼굴가린 123정 정장 함정일지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 경위가 3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치동 유명 학원강사 기소

"안마해준다"며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수학전문학원 원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당시 12세)양 등 수강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자신의 학원 공부방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책상 위에 앉혀 놓고 손을 옷 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뢰관계와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장기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학원을 계속 운영하며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추행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해병대 캠프 더위사냥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유격교육장에서 열린 '2014년도 여름 해병대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국방부 검찰단은 31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게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 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7)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 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비밀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합참 청사 건축 시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김 예비역 대령을 23일 구속했다.

검찰단은 김 예비역 대령의 지시를 받아 H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 씨로 하여금 Y 업체에 합참 설계 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박모(52) 원사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단은 합참 설계 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 업체의 정모(58)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 군 기밀 수집 및 탐지에 해당하면 민간 검찰로 이송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jhj@

관피아 논란 속 여전히 '넓은 문'

청와대 전 수석 2명 대기업·로펌행

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다혜기자

수·일 쉬는 개인택시 '라'조 도입

서울시 8월부터 3천대 시범 운영

8월부터 서울 개인택시에 새로운 부제가 도입된다. 36년간 가·나·다조로 운영되던 3부제에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쉬는 부제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둘째·넷째주 금요일은 휴무일로 하는 개인택시 특별부제('라'조)를 도입하기로 하고 1일부터 300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는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정비 등을 위해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쉬도록 정해놓은 제도로 1978년부터 운영돼 왔다.

현재는 순서대로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쉬는 가·나·다 3개조(각 조당 1만5000여 대 수준 유지)가 있고 2012년부터는 월~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심야택시(1797대)가 운영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라조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쉬되 기존 3부제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요일별 택시 공급량 등을 고려해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도 쉰다. /윤다혜기자

'올바른 의약품 사용' UCC 공모

서울시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마 아이 가족안전 지키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 UCC 공모"를 실시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종주제는 올바른 의약품 구매, 복용 및 관리, 의약품 부작용 대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습관,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등으로 세부소재 중 2개 이상 연계해 제작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와우서울(wow.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20, 02-2133-7532)로 문의하면 된다.

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구속··무허가 병상 등 건강보험 54억 가로채

간호조무사에게 800여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금 등 54억원 가량을 가로챈 병원장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무면허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각 무면허의료행위와 부정보조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간 B씨에게 총 849회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했으며 수술부위 절개·봉합, 관절내시경 촬영 등을 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받았지만 2006년도에 자신의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150병상을 운영해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88회에 걸쳐 40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3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metroseoul.co.kr

목마른 나무를 위해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운데 3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로 주변에 심어진 가로수에 울산시설관리공단 가로녹지팀 관계자가 호스로 물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 할인 개편… 사실상 '요금 인상'?

코레일이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 등을 폐지하기로 해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현재 시행 중인 할인제도 중 이용 실적이 많은 정기 고객 등에 대한 할인혜택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할인은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하고, KTX 역방향 및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은 폐지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수요 확대를 위해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월~목요일에 KTX는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의 요금을 각각 깎아줬다. 또 KTX 역방향과 출입구석은 5%, 철도이용계약수송은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다.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초기 수요확대를 위해 단계적 조정을 전제로 도입된 특별할인(30%)도 15%로 조정하고, 이용이 저조한 2층 가족석은 일반 발매로 전환키로 했다. ITX-청춘 개통시 특별할인 조정계획은 2012년 30%, 2013년 20%, 올해 10% 내년 정상운임이다.

이 같은 요금할인제도 폐지와 조정으로 해당 이용객들은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코레일은 대신 출·퇴근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율은 현행 50%(청소년 60%)에서 추가로 최대 7%를 할인한다.

아울러 승차율이 낮은 열차 위주로 제공되는 KTX 파격가 할인제도도 이용기간이 비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좌석 규모를 현재보다 10% 더 늘리고 올해 추석부터 역귀성 열차는 최대 70%까지 할인키로 했다.

/박상욱기자

수시 대입정보 박람회 '인산인해'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어려워진다

문제은행 문항 '300→700'·· 인터넷 무료 공개

경찰청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개선해 문제은행을 300문항에서 700문항으로 확대하고 1일부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공개된 문제로 학과 시험이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300문항으로는 교통법규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행방법, 양보운전, 빗길·눈길 운전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문제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비보호 좌회전과 황색점멸신호, 적색점멸신호 등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사례를 위주로 문제가 추가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량 유형별 특성을 학과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대형버스·화물차량, 트레일러, 레커차, 이륜차에 대한 문제도 대폭 확충됐다.

/윤다혜기자 ydh@

'인천아시아경기' 우표 판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우표가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됐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우표 6종 126만5400장을 3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는 대회 마스코트인 점박이 물범 3남매와 대회 종목인 농구와 스쿼시, 리듬체조, 레슬링, 크리켓 등 6종을 디자인으로 제작해 발행됐다.

덕성여대, 1억원 기탁 받아

덕성여대는 최근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 받았다.

하나은행은 덕성여대와 UN Women이 다음달 4~15일 개최하는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를 지원하고자 이번 발전기금을 내놓았다.

덕성여대는 2011년 UN-Women과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하나은행 최상진 북부영업본부장이 덕성여대 총장에게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덕성여대 제공

'포천 변사 사건' 사라진 어머니 체포영장

시신 부검·DNA 분석— 변사체 1구 남편 추정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유력 용의자로 어머니인 이모(50)씨를 지목하고, 3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면사무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에서 이씨의 모습을 확보해 주변 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시신이 발견된 29일에도 제과공장에서 근무했으며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 면사무소까지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씨에 대한 통신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날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남자 시신 2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데는 최소 5일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발견된 시신들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씨의 남편(51)과 큰아들(25)로 추정됐으나 큰 아들은 현재 경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이씨의 작은 아들(8)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metro Russia

Бегуны спаслись от мертвецов

metro France

Marne : le propriétaire de ... tueur relaxé

코끼리 대신 유죄판결 받은 '주인'

프랑스에서 한 코끼리 주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최근 서커스단 대표 막스 오칸트는 고의적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9일 쉬다 엄마 벼지을 코로 들어올려 살해한 자신의 코끼리 '탐야' 때문이다. 법원은 주인에게 동물의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탐야의 주인은 벌금 800유로(약 110만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metro Brazil

Oi é multada por monitorar e vender dados de clientes

개인정보 판매 통신사 '된서리'

브라질의 거대 이동통신사인 '오이(Oi)'가 고객 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로 350만 헤알(1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 소속의 소비자 보호부에 따르면 오이 사는 자사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오조리기록했다. 사측은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광고주와 포털 사이트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여름 더위 날리는 '좀비 달리기'

참가자들, 저승사자 피해 전력 질주… "등골 오싹하지만 생애 최고 경험"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소콜니키 공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좀비 달리기' 대회가 개최됐다.

대회는 모스크바시가 후원하는 '한여름 밤의 꿈' 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좀비 분장을 한 '죽은 자'들의 방해를 피해 소콜니키 공원에 마련된 5km 코스를 내달렸다.

대회 관계자는 "규칙은 간단하다"면서 "곳곳에서 출현하는 좀비를 피해 결승선까지 완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는 참가자들의 육체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두르고 있는 띠를 뺏으려고 한다"며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띠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는 좀비를 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털어 놓았다.

한 참가자는 "좀비가 나타나고 정신 없이 도망치느라 어느 순간 게임인 것도 잊어버렸다. 저승사자 수십 명이 숲길 양쪽에서 나타난 것 같아 아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심장이 요동치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출발선을 지난뒤 얼마 되지 않아 좀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좀비를 피해 더 깊은 숲 속으로 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깊은 숲 속에서 축구선수 좀비도 만났다"며 "덩치가 나보다 훨씬 커서 사력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축구선수 좀비를 피해 한참을 달리다가 어깨를 보니 피가 묻어 있었다"며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대회에 참여한 한 남성 참가자는 "결승선 200m를 남겨두고 좀비를 만났다"며 "여자친구가 결승선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좀비의 시선을 끄느라 결국 나는 결승선을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 증명서를 받지 못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지킨 든든한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인증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보그단 자라노프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제이미스 이탈리안 홍콩점 관심 '후끈'

영국의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사진)가 지난달 29일 홍콩에 레스토랑을 열었다. 홍콩점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았는데 좌석 첫날 9월 예약까지 완료,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이탈리아 식당인 '제이미스 이탈리안'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처음 개장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35호점까지 냈다. 홍콩점은 200좌석에 마련돼 있고 이 가운데 15%만 예약석으로 운영된다. 주방은 개방형으로 설계됐다. 고객들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특이 홍콩점은 대중적인 영업 전략을 택했다. 10인 이하 고객은 따로 봉사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가게 벽면은 홍콩의 유명 건축물과 거대한 붕어 포효하는 그림으로 장식, 홍콩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렸다.

제이미 올리버는 세계적인 요리사답게 홍콩에서도 인기가 높다. 한 직원은 "제이미 올리버는 손님들이 음식에 관심을 갖도록 보통 지점을 낸 후 초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홍콩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제이미 올리버는 광동어로 된 광고를 찍기도 했다. 광고에서 그는 "우리는 곧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 최초의 제이미스 이탈리안의 문을 엽니다. 매우 설렙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홍콩 음식점에서 중국산 식자재 안전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홍콩점 대표 주레이먼은 "홍콩점은 중국 대륙의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연어는 노르웨이산, 조개는 캐나다산을 이용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재료를 공수해 온다"고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1일>

뉴스&뉴스

동부대우 전자동세탁기 2종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드럼세탁기의 기능을 보강한 뒤 17㎏급 2014년형 클라쎄 전자동세탁기 2종을 출시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하루 2000달러까지 환전

●이르면 10월부터 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없이 환전상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 외화 액수는 건당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이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된다.

/황주영기자 hoa@

경력직 채용 8월에 몰려

●휴가시즌에 이직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하반기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이 8월 휴가철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3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86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력사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40.9%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 시기는 휴가 피크 시즌인 '8월'이 35.5%로 가장 많았다. '7월'(26.3%), '9월'(19.7%), '10월'(11.8%)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에 가장 많은 연차는 '4~5년 차'(44.7%)였다. '3년 차 이하'(38.2%), '6~7년 차'(10.5%), '10~11년 차'(4%), '8~9년 차'(2.6%) 순으로 주로 5년 차 이하의 경력자 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길 ○○ 동오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24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00164 ○○○○○

은행권, 2분기 장사 잘했다

국내은행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대손충당금 감소 등에 힘입어 2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4년 2분기중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4000억원(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순이익으로는 2012년 1분기의 3조3000억원 이후 9분기만에 최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규 부실 발생 감소로 인한 대손비용의 감소와 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2000억원, 9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국내은행의 주요 손익비율을 보면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50%로 전년 동기 보다 0.29%p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수익률(ROE)도 6.59%로 3.91%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상반기 기준 ROA는 0.40%로 지난해 0.21% 보다 개선됐지만 최근 10년(2004~2013년) 평균치인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금감원 제공)

구분	11년	12년	13년	1Q	2Q(A)	3Q	4Q	14년 상반기	1Q	2Q(B)	증감(B-A) 금액	증감(B-A) %
국내은행	11.8	8.7	3.6	1.7	1.0	1.5	△0.3	3.7	1.3	2.4	1.4	143.0
일반은행	8.4	6.7	4.5	1.6	1.0	1.4	0.5	3.0	1.5	1.5	0.5	44.3
시중은행	7.5	5.8	3.8	1.4	0.8	1.1	0.4	2.6	1.3	1.3	0.5	58.3
지방은행	0.8	0.9	0.8	0.2	0.2	0.3	0.0	0.4	0.2	0.2	△0.0	△8.7
특수은행	3.4	2.0	△0.7	0.1	△0.1	0.1	△0.8	0.8	△0.1	0.9	1.0	흑자전환

당기순익 2조4천억…9분기 만에 최고치

0.65%에 미치지 못했다.

ROE 역시 5.16%로 낮았다.

특히 ROE의 경우 지난해 2.49%를 제외하면 2003년 3.41% 이후 최저수준을 보여 여전히 수익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이자이익은 소폭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억원 늘었다.

비이자이익 역시 1조6000억원으로 1조원(195%) 급증했다.

이는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감소와 주가상승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등의 처분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일부 은행은 SK하이닉스 등의 주가상승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1.82%로 전분기의 1.80%보다 소폭(0.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이 상승한 이유는 일부 은행의 고금리 후순위채 상환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NIM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조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제철 자율협약과 신규 구조조정 기업 선정 등 대손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중 조선업 관련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된데다 신규 부실 발생이 줄어 들면서 전체 대손비용이 감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난 18일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대손자산 증가와 충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오른 5562억원 시현했다. KB국민은행은 당기순이익이 2879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7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84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기업은행은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9.5% 늘어난 2912억원으로 집계됐다.

/백아란기자 alwa0209@metroseoul.co.kr

1일은 복숭아데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린 2014 복숭아데이에서 어린이들이 복숭아 풀장에 들어가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화웨이·레노버·샤오미 '중국 삼총사' 질주

전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7% 넘어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삼총사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7%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화웨이·레노버·샤오미가 지난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510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7.3%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웨이가 2010만대(점유율 6.8%), 레노버가 1580만대(5.4%), 샤오미가 1510만대(5.1%) 순이다.

삼성전자는 745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25.2%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수치다. 애플은 352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1.9%를 기록했다. LG전자는 1450만대로 시장점유율 4.9%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 6위로 밀렸다.

'중국 3총사'의 활약으로 안드로이드폰 점유율도 크게 늘어났다.

2분기 OS별 스마트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억4960만대다. 점유율은 84.6%로 사상최대다. 반면 애플 i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3520만대 판매로 시장점유율 11.9%에 그쳤다.

한편 이 기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체 규모는 2억9520만대로 지난해 2억3300만대보다 26.9%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 성장률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위니아만도·삼성 제습기 성능 우수

제습기의 제습효율은 위니아만도, 소음은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습기 상위 9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11개 제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각각 2제품이고, 코웨이, 신일산업, 오텍캐리어, 콜러노비타, 위닉스, 동양매직, 위니아만도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의 제습효율은 1.79~2.36ℓ/㎾h로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위니아만도제품(2.36ℓ/㎾h, 49만3050원)의 제습효율이 가장 높았다. 제습효율이 가장 낮은 제품은 코웨이 제품(1.79ℓ/㎾h, 35만원)이다.

위니아만도,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의 소음은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삼성전자 제품은 최대 소음 조건에서 작동할 때 36㏈, 최소 소음 조건에서 작동할 때 30㏈로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소음이 작았다. /유주영기자

롯데마트 '농가 살리기' 채소 대방출 3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농가 살리기' 채소 대방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500여톤 가량의 채소를 방출해 농가 돕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배당주펀드가 뜨고 있다

새 경제팀 정책지원에 탄력…4821억원 유입

새 경제팀이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내놓자 배당주 펀드가 들썩이고 있다. 장기간 고수익을 올린 상위권 펀드에 자금이 쏠리는 동시에 배당주를 좇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3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0일까지 국내 공모형 주식형펀드(ETF 제외) 중 배당주펀드로 482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배당주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펀드는 모두 자금 유출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배당 부문에서 장기간 높은 성과를 낸 상위권 펀드로 자금이 집중됐다.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펀드는 '신영밸류고배당(주식)C형'으로 연초 이후 3447억원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전체 배당주펀드에 들어온 자금의 70%를 넘는다.

이 펀드는 최근 3년간 수익률도 40.46%로 1위를 지켜왔다.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선택할 때 장기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신영고배당자(주식)C-I'형과 '베어링고배당플러스(주식)ClassF'에 각각 916억원, 500억원이 순유입됐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3개 종목에 대한 투자 수요도 늘었다.

국내 배당 관련 ETF 3개 종목의 순자산은 연초 631억원에서 지난 30일 기준 161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우리KOSEF고배당상장지수'와 '한화ARIRANG배당주상장지수'는 1개월 수익률은 각각 4.89%, 4.22%를 기록했고, 교보악사파워고배당저변동성상장지수도 4.2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3% 안팎인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주펀드나 관련 ETF에 투자할 때 고수익 상품에 치중하기 쉽지만 이들 상품이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한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과 맞물려 향후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주펀드가 더 각광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미 많이 오른 펀드보다 그동안 부진했던 펀드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동양피해자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배상비율은 15~50%로 정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글로벌 영향 '제한적'

아르헨티나가 채권단과의 협상 결렬로 13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펀드 2곳의 15억 달러의 채무 상환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시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르헨티나의 이번 디폴트 위기는 지난 2001년 디폴트와 연결돼 있다.

당시 1000억 달러에 이르렀던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놓였던 아르헨티나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이 빚을 대폭 삭감해 준 것으로 아르헨티나의 채무는 290억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채무조정안에 2개의 헤지펀드가 동의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미국 법원이 지난 달 27일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헤지펀드들도 다른 채권단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난 달 27일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펀드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일파만파 번졌다.

이에 따른 아르헨티나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용등급 악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동요, 우려 금값이 우려된다.

그러나 2001년과 같은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영향이 "최소한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와 경제적 연관이 깊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영향권에 휩싸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김현정기자

6월 국내銀 가계대출 3.6조 증가

연체율 0.8%로 하락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이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14조 8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0.4%(5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487조7000억원으로 집계된 가계대출은 3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증가폭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는 1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몫을 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6조 5000억원으로 6월 한달간 3조 1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구입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대출은 68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의 6조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수치다.

/백아란기자 ⓐ ofa@metroseoul.co.kr

작지만 효율성 '틈새아파트' 눈길

분양가는 20평형대, 공간 활용도는 30평형대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신평면 출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존 정형화된 소형과 중형이 아닌 틈새상품이 잇달아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형아파트라 하면 전용면적 59㎡(25평형)와 84㎡(33평형)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형과 중형 사이인 69㎡, 72㎡, 75㎡(26~29평형) 등으로 세분화돼 보다 다양한 평면이 개발되고 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8월 분양 예정인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에 전체 15%가구 중 30% 수준인 427가구를 전용면적 75㎡로 설계했다. 앞서 공급된 3차에서 75㎡ 틈새평면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감안, 당시 272가구보다 물량을 57%가량 늘렸다.

롯데건설이 같은 달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하는 '양산 롯데캐슬 이스트'에는 73㎡가 3개 타입에 걸쳐 277가구 포함된다. 전체 623가구의 40%가 넘는 물량이다. 또 이지건설이 경기도 평택에서 선보인 '평택용죽지구 이지더원'은 513가구 전체가 75~76㎡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반도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호반건설이 '호반베르디움 더 프레스티지', 한림건설이 '대전 한림 풀에버', 동부건설이 '센트레빌' 등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각각 74㎡, 70㎡, 71㎡의 틈새평면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공급 단지를 중심으로 틈새평면이 증가하는 이유는 20평형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30평형대의 공간 활용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건설사들이 확장평면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최근 2~3년 사이 전용면적의 절반에 맞먹는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70㎡ 크기의 아파트라도 확장만 하면 30평대 후반과 맞먹는 최대 105㎡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분양가는 20평대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다 보니 틈새평면을 선호하는 수요자들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 것이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설계기술의 발달로 좁은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말 그대로 틈새인 평면"이라며 "실속형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틈새평면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psy@metroseoul.co.kr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포함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로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은 자율적 노사합의로 다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0%)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49.0%)을 주로 꼽았다. 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0%)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8.0%) 등을 꼽은 기업도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여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 올해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기업 '임금항목 단순화해 흡수' VS 노조 '포함 범위 확대'
86%가 "노사합의로 타결 예상"…파업 전망은 4.5% 그쳐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는 다소 상이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 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웠다.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는 핵심 사항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한 임단협 목표에서 보듯이 임단협 교섭기간은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기간을 과거 3년과 비교했을때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0%)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기업의 86.0%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거치(2.5%)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어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순이었다.

전수봉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임금관리체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석일기자 ssi1@metroseoul.co.kr

나뚜루팝 시원한 여름 이벤트 아이돌 그룹 갓세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나뚜루팝 종로점에서 열린 '갓세븐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이벤트에서 대형 빙수 만들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그룹 연수원 'DLI 춘천' 기공식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에 그룹 연수원인 'DLI 춘천'을 건립한다. 31일 최동용 춘천시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2016년 10월 준공예정인 'DLI 춘천'은 2만여㎡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된다. 교육시설 이외에 국제회의가 가능한 540명 규모의 컨벤션홀도 갖출 예정이다.

DLI 춘천 조감도.

DLI 춘천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DLI 연강원'에 이은 두번째 그룹 연수원으로,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경영철학에 따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두산은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 열정이 남다른 기업으로,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인재양성을 선택했다"며 "DLI 춘천은 두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삼성 스마트폰 반전 꾀한다

신소재·중저가 라인업 확충 – 중국발 견제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새로운 디자인, 신소재를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폰과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를 통해 반전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수기 상황이 지속되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돼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올 하반기엔 성수기 효과와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를 통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무는 31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모바일 부문에서 올해 3분기 대화면의 혁신적인 신모델과 새로운 소재, 디자인을 적용한 플래그십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하반기 메탈을 적용한 '갤럭시 알파(가칭)'와 지난해 출시한 커브드 형태의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 후속작 등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김 상무가 언급한 제품도 '갤럭시 알파'를 거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전무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하이엔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소재를 적용하고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기술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LTE 시장에서도 LTE A 카테고리(Cat)6 등 앞선 LTE 기술 리더십과 사업역의 바탕으로 계속해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국발 스마트폰 시장 위기'를 타개한다는 심산이다.

김 전무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펙, 가격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가 단기적 마진 압박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나 소수 전략모델 출시, 물량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별로 시장 특성이 달라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 트렌드"라며 "제품 모델력과 가격경쟁력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2조3532억원, 영업이익 7조1873억원, 당기순이익 6조25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9%, 8.89%, 19.59% 감소한 수치다. /이혜영기자 [yi453@

삼성물산(왼쪽)과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삼성물산 시공능력 1위

국토부 발표, 현대건설 산업환경설비 최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4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3조1208억원으로 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이 올해 1위를 차지한 요인은 호주 로이힐 광산개발프로젝트, 중국 서안반도체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발전소 건립 등 글로벌 시장개척으로 인한 해외공사 실적 증가에 따른 것이다.

2위는 현대건설(12조5666억원)로 지난해 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3위는 포스코건설(9조22억 원)로 두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3위였던 대우건설(7조4901억 원)은 두 계단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은 지난해와 동일한 각 4위, 6위, 7위, 8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위였던 한화건설은 한 계단 상승한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54위였던 현대엔지니어링(3조2139억원)은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올해 10위를 차지하면서 'Top 10'에 새로 진입했다.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12조7000억원으로 전년(215조2000억 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공공건설공사 실적감소, 건설경기 침체 지속, 그리고 건설업계의 경영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의 채산성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이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한 10조4852억원(2013년 9조3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중공업(8조9804억원)이 2위, 삼성물산(8조9764억원)이 3위를 차지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이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4년만에 시평액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산업환경설비업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도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발전소, 베트남 몽주옹 화력발전소 공사 등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증가 등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것이다. /김학석기자 kmh@

슈피겐, G3 케이스 '마그네틱 클립' 출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대표 김대영)은 LG G3의 퀵서클 케이스에 결합해 전면 커버를 고정시켜주는 '마그네틱 클립'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국내 특허가 등록된 슈피겐만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간단한 설치를 통해 전면 커버가 들뜨거나 불필요하게 열리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5의 S뷰 커버용으로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LG G3 퀵서클 케이스 전면 커버에 알루미늄 소재의 클립을 결합하고, 기기와 맞닿는 측면 부분에 자석을 부착하면 자력을 통해 커버가 열리거나 들뜨지 않도록 고정시켜 준다.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로 LG G3 퀵서클 케이스의 세련된 컬러감과 잘 어우러지며 기기 자체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국내 특허등록으로 슈피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은 6300원이다. /김태균기자 ksa@

팬택, 한 고비 넘겼지만…

협력사 대금 숙제로… 이동사 추가물량 구입 '난색'

팬택이 생사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여전히 자금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추가 구매 등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요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은행, 농협 등 채권은행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팬택 정상화 방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통3사는 채권단이 요구한 팬택에 대한 1800억원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대신 상거래 채권 상환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처럼 이통사가 제시한 수정 제안을 반영한 채권재조정안을 29일 부의했다. 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실상 중단 상태인 팬택의 워크아웃은 재개된다.

이에 산업은행(채권액 비중 43%), 우리은행(32%), 농협(16%) 등 3개 채권은행이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인 가결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팬택으로서는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시름을 덜었다. 사실 팬택은 이달 1800여명 임직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번 워크아웃 재개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신규 물량 공급과 협력사 대금 지급 등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구성된 '팬택협력사협의회'는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팬택으로부터 받아야할 부품 대금 10~30%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는 한편,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SK텔레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통3사가 6월부터 오늘까지 단 한대의 팬택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은 중단되고 임직원의 임금, 대출금 이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금융권으로부터 원금회수 독촉, 가압류 등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협력사가 없는 팬택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추가 물량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재고물량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 구입은 우리도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며 "팬택의 워크아웃 재개로 한 고비 넘긴만큼 향후 재고물량이 팔려가는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렬기자 [illegible]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관람객을 위한 시식용 피자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워드존슨 제주 호텔, 제주 노른자위 입성

세계 1위 호텔그룹 윈덤의 최상위 브랜드인 '하워드존슨 제주 호텔'이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연동에 입성한다. 특히 연동에서도 노른자위로 불리는 트라이앵글 존1에 입지해 눈길을 끈다.

연동 트라이앵글 존이란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거친다는 바오젠거리와 3만7000여 명의 연간 입장객 수를 자랑하는 더호텔 카지노, 제주면세점(하반기 오픈 예정)을 3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삼각형 형태의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 특화거리로도 불리는 이곳은 제주 국제공항에 인접한 신제주 관광특구에서도 가장 핵심지역으로 통한다.

국내에서 이 호텔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55~61.55㎡의 객실 664실과 식음 고급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객실은 지상 4~18층에 배치되며,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총 1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특히 하워드존슨의 엄격한 설계 기준에 따른 욕실을 구비하는 등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한다.

준공 후 최대 5년간 실투자금액의 연 11%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분양가격은 3.3㎡당 12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3.22㎡를 선택할 경우 은행융자 60%를 적용해 실투자금 6000만원대로 5년간 매월 100만원대의 고정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고, 계약금 10%와 대출 이자를 5년간 5% 지원하는 금융조건도 적용된다.

이밖에 365일 계약자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해 제주도 내 명문 골프클럽인 아덴힐 리조트앤골프장, 캐슬렉스 골프장과 더호텔 카지노 등의 객실 연계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견본주택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총 5곳에 오픈했으며, 서울에는 송파구 잠실동 196-13번지에 마련돼 있다. (문의 02-416-4300)

/박선옥기자 [illegible]

김연아·손연재, 통신사 모델 '女神 대결'

세계인 김연아 선수와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가 가전 제품에 이어 통신사 광고에서도 맞대결을 펼친다. 두 선수는 이미 삼성과 LG전자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는 2009년부터 삼성전자 에어컨 모델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월에는 SK텔레콤 광대역 LTE-A 캠페인 모델로 발탁됐다. 손연재 선수는 2010년 LG전자 휘센 에어컨 모델로 기용됐고, 지난 이달 30일부터 LG유플러스 광고 모델로 전파를 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속모델인 가수 지드래곤은 브랜드 광고 중심으로, 손 선수는 신규 서비스 'U+ 가족친구 할인' 모델로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손연재 선수가 리듬체조 부문 국가대표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면서 "광고 영상에는 가족친구 할인 상품의 특성을 살려 손 선수가 어머니 오빠 친구 코치들 리본으로 감싸는 모습이 다온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것과 관련,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경쟁사 대결 구도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광대역 LTE-A와 LG유플러스 'U+ 가족친구 할인' 광고 장면 (왼쪽부터)

SK텔레콤·LG유플러스 대표 선수로… 양사 경쟁구도 반영

하지만 김연아 선수와 손연재 선수가 광고 라이벌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두 선수는 에어컨과 통신사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스포츠 의류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쓰는 업계 1위란 공통점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상당한 밀착 관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신규 통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막후 전략으로 숱한 최초 기록을 함께 받어냈다. SK텔레콤의 광대역 LTE-A와 LTE-A 전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에는 삼성전자의 전용 스마트폰 물량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갤럭시S5를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최초 출시한 것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수익을 높이려는 선택이었다.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노력은 광고 모델 선정으로도 이어진다. 김연아 선수는 2010 벤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 이후 줄곧 광고주가 선호하는 모델 1위를 달려왔다. 금메달리스트는 세계 최고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6월 19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광대역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설명회에서 "1등 이미지 구축을 위해 김연아 선수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김 선수가 직접 참석해 광대역 LTE-A를 시연하기도 했다. 김 선수의 모델료는 한류스타 부럽지 않는 특A급이다.

한편 LG가 모태인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나란히 손연재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손 선수는 2010년 LG전자 휘센 에어컨 모델로 계약하면서 삼성 에어컨 모델인 김 선수와 묘한 대결 구도를 보였다. 업계에서도 김 선수에 대적하는 외모와 기량을 가진 대안으로 손연재 선수를 주목했고 광고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손 선수는 나이가 어린만큼 장기적 광고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젊은 고객 비중이 큰 기업에서 손연재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만 손연재 선수가 김연아 선수 버금가는 모델료와 장기 계약을 누리려면 국제 대회에서 더 큰 실력을 보여야 한다.

한 대형 광고사 관계자는 "광고 시장은 주식과 비슷해서 인기 연예인이라도 후속 작품 반응이 안 좋으면 시장 평가는 곧바로 내려간다.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인데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는 한때 본업에 소홀하다는 국제적 비난에 시달렸다. 최고 이미지 입증은 스타의 숙명"이라고 평했다.

/박종화기자 pjh@metroseoul.co.kr

"올레멤버십으로 최고의 혜택 받으세요" KT는 8월부터 베이커리, 외식, 테마파크, 영화관 등 분야별로 최상의 인기 제휴사 할인 혜택을 신규로 추가한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시즌2'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KT 제공

여행채널 보고 정보 얻자!

유료방송업계 전문 프로그램 '주목'

'그럼에도 여행', '엄마, 일단 가보자' 등 여행 서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만큼 여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유료방송업계 역시 여행전문채널을 통해 여행을 앞둔 이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대리만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o. 1 여행채널'을 표방하는 스카이트래블이 8월 1일 개국한다. 축제, 문화, 휴양지 등 국내외 여행에 관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던 채널T의 새로운 변신이다. 스카이TV는 채널명 변경에 맞춰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편성을 구성했다.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밤까지 주말 시간 대에 '스카이트래블 주말여행'을, 일요일에는 '스카이 휴(休)타임'을 편성했다.

특히 매주 월~목요일 저녁 8시에는 유명인이 추천하는 여행지가 소개된다. 8월 4일 선보일 방송인 손미나 씨의 '내가 사랑하는 자출레'를 시작으로 23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어쩌다 마주친 여행- 홍수아' '데이브의 어느 멋진 날 제코 편'도 만날 수 있다.

스카이TV 관계자는 "여행채널은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스카이라이프 기준으로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최근 스토리가 있는 여행기를 원하는 시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자체 제작 건수를 늘리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미디어는 지난 1월 아웃도어&여행 채널인 ONT를 론칭했다. 이 채널의 지향점은 아웃도어와 여행을 통해 삶을 치유하는 것. 지난 12일부터 세계 유명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부작 여행 다큐멘터리 '세계여행 안내서'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7시30분, 오후 2시30분, 밤 9시30분에 만날 수 있다.

현대미디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 콘텐츠와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OKDGG '해외 무료배송 이벤트'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의 역직구 오픈마켓 OKDGG가 8월 한 달간 '해외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거주 고객이 OKDGG에서 98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4.5kg의 상품까지 무료로 배송한다. 배송무게 4.5kg를 초과해도 이벤트 금액은 뺀 차액만 결제하면돼 저렴한 배송이 가능하다.

OKDGG는 해외 고객을 위한 역직구 오픈마켓으로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약 180% 증가하는 등 국내 역직구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OKDGG에 입점한 국내 쇼핑몰은 800여 곳으로 약 30만개의 상품을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김창수 OKDGG 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해외에서도 배송비 부담없이 국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한국 직구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역직구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지적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이는 중증장애인훈련프로그램 MATP. /엔씨재단 제공

라이엇게임즈가 진행한 서울문묘와 성균관 3D정밀측량 사업 이미지. /라이엇 게임즈

'착한 일 하기' 미션 클리어! 업계 '도미노' 선행

엔씨재단 CJ넷마블 장애인 후원 '롤' 라이엇 문화재 보존 측량

지난 15일 서울농학교와 다니엘학교 축구부 장애학생 50명에게 뜻밖의 선물이 생겼다.

게임 회사 CJ넷마블로부터 멋진 축구 유니폼을 전달받은 것이다. 어찌까지만 해도 이들 특수학교 학생들은 평상복을 입고 운동을 했다.

넷마블 스마트 나눔활동으로 통하는 이번 기부 행사는 넷마블 페이스북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됐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장애학생들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게임업체들이 '착한일 하기' 미션을 앞다퉈 '클리어'(완수를 뜻하는 게임 용어)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비영리 공익 재단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사장 윤송이)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나경원)는 8월19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11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에 유어선수프로그램, 중증장애인훈련프로그램 등 지적 자폐성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발의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기간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공익 소프트웨어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 'My First AAC'(나의 첫 AAC)를 체험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스페셜올림픽은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국내 1위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개발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와 성균관의 보존관리를 위한 3차원 정밀측량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대국민 활용방안을 공개했다.

문화재청 주관 아래 사업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가 3차원 레이저 측량, 영상콘텐츠 제작 등 과업을 2개 영역으로 나눠 약 9개월 간 사업을 전개했다.

라이엇 게임즈와 문화재청이 3차원 정밀측량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특정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원형기록이 구축되면 재해로 인한 훼손이나 소실 시 그대로 복원하는 데 필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는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인 태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보수에 쓰일 후원금을 최근 전달했다.

연쇄적 이뤄진 선행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박병호·히메네스·나성범이 한 팀?

'MVP 베이스볼 온라인' 선수카드 업데이트

박병호, 박석민, 히메네스, 나성범이 한팀에서 뛰는 꿈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온라인 실사 야구게임 'MVP 베이스볼 온라인'에서 '2014 올스타 선수 카드'를 업데이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수 카드는 2014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넥센 박병호, 삼성 박석민, 롯데 히메네스, NC 나성범 등 베스트11 선수를 포함해 총 45명 선수를 만날 수 있다. 올스타 선수 카드를 얻으려면 스카우트와 선수카드 영입권을 이용하면 된다.

선수를 다시 육성하고 싶은 게이머들을 위해 선수 기록을 초기화하는 아이템과 구단명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2014 올스타 선수 카드 영입권, 골드카드 영입권, 강화 초기화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 등을 8월말까지 한정판매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드래곤네스트와 슈렉이 만났다

31일 중국서 개봉…국제 영화제에서도 호평

국내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됐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액션 RPG '드래곤네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 '드래곤네스트, 전사의 여명'이 31일 중국에서 개봉됐다고 밝혔다.

영화 '드래곤네스트, 전사의 여명'은 샨다게임즈와 밀리픽처스(Mili pictures)가 공동으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이다. '슈렉'의 시나리오 작가 '테리 로시오'와 중국의 차세대 애니메이션 감독 '송약봉'이 제작에 나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중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드래곤네스트, 전사의 여명'은 개봉 전부터 2013년 상하이 국제영화제와 2014년 칸느영화제에 초청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는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블랙드래곤에 맞서 주인공인 럼버트가 '드래곤 슬레이어'라 불리는 6명의 영웅들과 펼지는 모험을 담고 있다. 게임 '드래곤네스트'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게임의 독특한 캐릭터와 액션을 잘 살렸다고 평가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피파온라인3' 아시아 최강 가린다

'스피어헤드 인비테이셔널' 28일 서울 개최

브라질 월드컵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피파온라인3'의 개발사인 스피어헤드는 온라인 축구게임 'EA 스포츠 피파온라인3'의 첫번째 아시아 지역 통합 e스포츠 대회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연다고 31일 밝혔다.

FIFA ONLINE3 SPEARHEAD INVITATIONAL 2014

'피파온라인3 스피어헤드 인비테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의 피파온라인3 국가대표팀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각국 국가대표팀은 올 상반기부터 치러진 각 국가별 자체 리그를 통해 선발됐다. 한국의 경우 '피파온라인3 챔피언십 2014'의 우승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별 예선전은 28~29일 서울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열리며, 결승 본선은 3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스포TV 게임즈, 네이버, 아프리카TV, 판센트 게임이레나, 가레나 톡톡, 유투브, 참가국들의 피파온라인3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7개국 언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세계 디저트 국내서 즐기자

벨기에·일본·영국 등 대표 제품 내세워 유혹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먹거리 여행을 준비한다면 비싼 비행기값 등 많은 지출을 하기 보단 현명하게 국내에서도 다양한 현지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먼저 벨기에선 수제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에서는 벨기에의 진하고 깊은 초콜릿맛을 볼 수 있다.

특히 엄선된 벨기에 다크 초콜릿 2종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담아 진한 초콜릿 본연의 풍미와 아이스크림의 달콤하고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더블 초콜릿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콘셉트로 매장에서 초콜릿보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일본 생크림 롤케이크 브랜드 '몽슈슈'는 홋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도지마롤'(사진)을 케이크로 지난해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국내 첫 매장을 연 이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제품은 일본 대표 낙농지인 홋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생크림을 듬뿍 넣고 생크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펀지케이크를 최대한 얇게 구워 한 번만 감싸 기존 롤케이크와 차별화된 맛을 선사한다.

달지 않고 신선한 크림 맛의 오사카 명물 '도지마롤'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의 맛이 산뜻하게 느껴져 젊은 20~30대 고객부터 달지 않은 맛을 즐기는 중·장년층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우유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한 푸딩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디저트다.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아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한다.

CJ제일제당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의 '쁘띠첼 스윗푸딩'은 지난해 10월 출시돼 푸딩이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영국 정통 푸딩의 맛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이 제품은 밀크 커스터드, 생크림 커스터드, 로열 커스터드, 레이지즈의 네 가지 종류로 우유와 계란을 기본으로 하고 각 맛에 따라 생크림, 캐러멜 시럽, 치즈, 레몬즙 등을 재료를 넣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복날이면 환영 받는 '보양식 요리'

복날이 되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에 관심이 많아진다. 보양식의 대명사 삼계탕부터 장어, 오리고기탕 등 취향에 맞는 음식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다스려 보는 건 어떨까?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장어덮밥

분량: 1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412㎉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장어(민물장어) 1/2마리, 밥 1공기, 초생강 20g

[양념] 산초가루 약간, 시판 장어양념장 3큰술

1. 민물장어는 넓적하게 편 다음 뼈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둔다.
2. 민물장어를 2~3등분해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는다.
3. 장어양념장을 2~3회 발라가면서 구워낸다.
4. 그릇에 뜨거운 밥 1공기를 담고 구워둔 장어를 올린 뒤 산초가루를 살짝 뿌린 다음 초생강을 곁들인다.

◆삼계탕

분량: 1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65㎉ / 조리시간: 60분

[주재료] 닭고기(영계) 1마리, 찹쌀 1/2컵, 마늘 4쪽, 대추 4개, 생강 1쪽, 물 8컵

[양념] 수삼 2뿌리, 다[illegible], 소[illegible] 약간

1. 닭은 내장을 제거해 깨끗이 씻고, 찹쌀은 씻어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건진다.
2. 닭 속에 다듬은 찹쌀, 마늘, 대추, 수삼을 넣고 왼쪽 다리 안쪽에 칼집을 넣어 그 사이에 오른쪽 다리를 넣어 꼬아준다.
3. 생강은 얇게 편 썰어 준비한 후 냄비에 닭과 대추, 생강, 물을 넣어 끓인다.
4. 센 불에서 끓인 후 불을 줄여 40분 정도 푹 고아준다.
5. 닭이 익으면 닭은 꺼내고 국물은 식혀 면보에 걸러 기름기를 제거한다.
6. 냄비에 닭과 ⑤의 국물을 넣어 뜨겁게 데운 후 그릇에 담는다.

◆오리고기탕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69㎉ / 조리시간: 40분

[주재료] 오리 600g, 배추 2장, 당근 40g, 청고추 2개, 식용유 약간

[양념] [illegible] 간장 1큰술, 설탕 1작은술, 소[illegible] 작은술, 다진파·다진마늘 각 1큰술

1. 오리고기는 깨끗이 씻어서 4㎝ 크기로 토막 내어 양념에 버무린다.
2. 배추는 끓는 물에 데쳐서 가로, 세로 각각 3㎝ 크기로 썬다.
3. 당근은 납작하게 썰고 청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서 어슷 썬다.
4.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한 오리고기를 볶다가 물을 부어 푹 끓인다. 끓이는 도중 생기는 기름은 걷어낸다.
5. 배추, 당근, 청고추를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김소형 아미케어 김소형 한의원 원장

"체질을 알아야 건강을 지킨다"

메트로신문 5일부터 '본초 테라피' 연재

/손진영기자 son@

"여름에는 무엇보다 몸 속을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음인(陰人)인지 양인(陽人)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2000년대 초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미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터줏대감 MC들을 단번에 제압했던 미스코리아 출신의 김소형 아미케어 김소형 한의원 원장에게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묻자 짧지만 강력한 한 마디가 돌아왔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체질을 먼저 알아야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으로 나뉜다. 선상을 위해서 음인은 양기를 올려주는 보양관리가 필요하고 양인은 음기를 올려주는 보음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단백질이 부족해 무조건 단백질을 섭취했다. 하지만 보양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보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사약이 될 수도 있다."

몸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것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여름의 보양식 선택이 그렇다. 김 원장에 따르면 삼계탕이나 보신탕은 땀을 많이 흘리면 기력이 없고 배탈이 잘 나는 소음인에게 적합하다. 반면 태음인은 따뜻한 성질이 있는 콩을 사용한 콩국수나 곡류가 좋다. 또 소양인이나 태양인에게는 찬 기운의 오리고기나 메밀국수, 제철 과일 등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본초(本草)학 전문가답게 본초를 이용해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초는 약효를 가진 다양한 재료들을 뜻하는 말로 쑥이나 냉이, 미나리 등의 식물은 물론 동물·광물성 물질까지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나름의 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약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하며 미용과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으로도 본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원장은 환자들의 요청에 계속해 현재 본초의 고유한 기운을 고려한 건강요법인 '본초 테라피'를 만들고 있다. 자신의 체질과 맞는 본초를 찾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초의 기운도(음양 수준)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많이 잊혀졌지만 본초 테라피는 전통을 간직한 유산이다. 이를 계승·전수하는 역할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며 환자나 일반인이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지금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다.

김 원장은 그동안 수집·정리한 본초학을 실생활에 바로 접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를 메트로신문에 8월 5일부터 주 1회 연속 게재한다.

/황재희기자

롯데리아 'Mom편한 야구캠프'

2차례 초등생 200명 대상

롯데리아가 주최하는 'Mom편한 야구캠프'가 지난달 28일 개막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캠프는 '야구인과 함께하는 2014 롯데리아 유소년 야구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번 캠프는 2차에 걸쳐 총 2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 초등학교 2~6학년 야구 꿈나무들이 익산국가대표야구장, 리틀 야구장 등에서 야구의 즐거움을 만끽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운영되는 2차 캠프에는 참가자 보호자 중 2명을 추첨해 자녀들이 야구 캠프에 있는 동안 마음 편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1인 100만원의 마음(Mom) 편한 휴가비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착한 패션, 나눔활동도 콜라보레이션

지역·단체·기업 손잡고 다방면 활동 전개

패션업계의 협업(콜라보레이션) 활동은 이제 필수다. 둘 이상의 브랜드가 합쳐지거나 업종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협업은 업계의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사회 기관이나 구호단체, 기구 등과 손잡고 조용히 나눔활동을 전개하는 '착한 기업'이 있다.

패션그룹형지는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손잡고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녀교육비 후원을 위한 네티즌 모금활동으로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교육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여성을 후원하는 'WOW(Wings Of Women)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모금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이용자들이 제안부터 진행까지 참여하는 네티즌 모금 서비스인 '다음 희망해'와 손을 잡았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28일까지 1주일간 네티즌 404명이 참여하며 기부금 556만9040원이 모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는 기업 기금과 네티즌 모금을 합쳐 총 1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아진 기금은 기아대책을 통해 9월 첫째주 12명의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한 사내 봉사단 '행복나눔봉사단'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서울 암사재활원에 방문해 학습교재 제작, 환경 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정그룹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대규모 이웃돕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임직원들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을 직접 방문해 쌀과 라면, 김치, 생필품 등의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난해 성품·성금 금액은 약 4억5000만원. 올해는 약 4억3000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총 55억원에 이르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급여우수리모금제도'를 통해 매월 급여 중 천원 미만의 끝단위 금액을 모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아동과의 결연을 통한 정기적 후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패션기업 GSGM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여름 '독도사랑 티셔츠'를 출시하여 독도수호단체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함께 적극 활동하고 있다.

회사는 운동본부와 8월 중 국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며 후원기금 전달과 함께 독도수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세실업의 계열사이자 유아동복 기업인 드림스코는 지난해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함께 시작한 '컬리수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올해 연말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작년 연말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됐으며 '좋아요' 1회당 한 장의 연탄이 적립돼 총 5000장의 연탄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올해도 연탄 나눔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신성통상의 올젠(OLZEN)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 위기아동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 '해피 클로젯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8월 31일까지 매장에서 진행되며 티셔츠를 구매하면 국내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티셔츠가 기부된다.

잔스포츠는 기아대책본부에서 전개하는 '2014 해외 교육지원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회사는 대책본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방 기부 캠페인을 8월 15일까지 벌인다.

/김학철기자 kimc0104@metroseoul.co.kr

'스냅백' 바캉스 아이템으로 제격

각양각색 연출 가능, 자외선도 막을 수 있어

최근 햇빛 차단은 물론 각양각색의 디자인과 컬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스냅백'이 바캉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스냅백은 모자의 앞챙이 일자로 곧게 뻗어 있으며 모자 뒷부분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냅이 부착되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옥션에서는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스냅백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60%나 신장했다. 특히 10~20대의 구매 비중이 전체 39%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층에서 인기다. 성별로는 남성(55%)이 여성(45%)보다 구매 비중이 높았다.

스냅백은 쓰니 방법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이다. 여성들의 경우 점퍼지, 흰 티셔츠에 플라워 프린트가 들어간 스냅백을 쓰면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뒤로 눌러 쓰면 발랄해 보이며 보이시한 느낌도 줄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살짝 옆으로 기울여 쓰거나 두건 위에 쓰면 더 멋스러워 보인다.

태국관광청, 여행자보험 론칭

태국관광청은 태국의 4개 보험사와 함께 '타일랜드 트래블 쉴드(Thailand Travel Shield)' 여행자보험을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7월 2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tourismthailand.org/thailandtravelshield)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으며 사고, 여행 취소·짐/개인물품 분실 또는 파손, 긴급 호텔 예약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100만 바트를 보장하는 660바트 상품과 200만 바트를 보장하는 1100바트 상품 두 가지로 보험 기간은 최고 60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또 이 보험에 가입하면 알리안츠 보험사의 24시간 응급 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날씨·환율·전화 의료 서비스, 짐/여권 분실 도움 서비스, 대사관 소개 등 여행 전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맑은물 리조트'로 힐링하러 오세요~

강원도 인제 천혜의 환경 자랑 · 다양한 체험 가능해 피서객 유혹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힐링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힐링의 진정한 멋과 맛을 간직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아름다운 휴식의 운치를 간직하고 있어 섬프여행이 가능한 강원도 인제의 맑은물 리조트(www.cwresort.co.kr)를 소개한다.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경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2시간 내외로 도착 가능한 리조트는 인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 1만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41개의 객실은 모두 친환경 조경설계로 만들어졌다. 특히 통유리뷰에 보이는 산과 내린천은 말 그대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에서는 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리조트 중앙 센터의 야외 풀사이드 수영장은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내린천을 마주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는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토마토 등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내린천에서는 견지낚시나 플라이낚시가 가능해 자연에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또 보다 짜릿한 물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릴 만점의 래프팅도 준비돼 있다. 내린천은 풍부한 수량과 빠른 유속으로 래프팅을 즐기기 최적의 장소이며 리조트 바로 앞에서 래프팅이 시작돼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아울러 내린천과 리조트 사이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ATV나 MTB를 이용할 수 있고 노래방과 탁구장, 족구장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리조트 곳곳에는 자두, 블루베리 등의 과일나무가 많고 허브가든에서는 생잎을 따 허브차를 끓여 마실 수 있다.

리조트 오는 길에는 인제 자작나무숲이 있으며 한계령을 넘으면 양양과 속초 바다가 코앞이라 여름여행도 할 수 있다. 특히 아침가리(조경동) 계곡 트래킹을 빼뜨릴 수 없다. 바위와 물을 가르는 익사이팅한 트래킹에 삼림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문의 033-463-8703~5

"촌스러운 붕어빵 패션 그만"

액세서리로 닮은 듯 커플 시밀러룩 연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맞춰 입는 '붕어빵 커플룩'은 한물 갔다. 올여름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밀러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시밀러룩이란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뜻의 시밀러(similar)에서 유래된 것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입는 커플룩을 말한다.

팀브랜드 관계자는 "소재나 컬러, 패턴 등 디테일한 부분만 통일하는 것이 시밀러룩의 포인트"라며 "셔츠나 팬츠보다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 보다 트렌디한 룩이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신발'은 도전하기 쉬운 커플 아이템이지만 투박한 운동화를 나란히 맞춰 신었다가는 자칫 촌스러워보일 수 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발등이 살짝 보이는 보트슈즈나 슬립온을 활용하는 게 좋다.

남성이 클래식한 디자인의 보트슈즈를 선택했다면 여성은 가죽 소재의 웨지힐로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식이다.

시원한 캔버스 소재의 슬립온의 경우 색상이 다양해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골라 신으면 된다.

팔찌 역시 유용하다. 액세서리에 부담을 느끼는 남성들도 가느다란 팔찌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토스 관계자는 "가죽 팔찌는 시크한 연인의 느낌을, 원석 팔찌의 경우 발랄한 커플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기자

남성 피부, 기름↓ 수분↑

유·수분 균형 맞춘 제품 출시 잇따라

덥고 습한 여름에는 미용에 관심 없던 남성들도 피부 관리에 신경쓰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번질번질한 이른바 '개기름'이 흐르는 반면 속에서는 잠아 당기는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피부 전문가들은 "화장을 따로 하지 않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스킨케어에 소홀해 날씨의 계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강한 자외선과 땀으로 상한 여름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LG생활건강은 메마른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는 스킨케어 제품 '비욘드 더 트리 포맨'을 내놨다.

건조한 중건성 피부에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는 '모이스처 라인'과 지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보송보송한 피부로 가꿔주는 '프레쉬 라인' 등 두 가지다.

쿨링 미스트, 모이스처라이저, 스크럽 폼 클렌저로 구성된 키엘의 '오일 엘리미네이터 컬렉션'은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를 위한 피지 케어 라인이다.

쿨링 미스트는 멘톨 성분이 포함돼 즉각적인 쿨링 효과는 물론 글리세린 성분이 유·수분 균형을 맞춰 번들거림 없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 무게 4000배 이상의 강력한 흡착 기술이 적용된 모이스처라이저는 피지를 흡수 관리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강한 햇볕은 피부 건조와 노화의 주범. 평소 자외선 차단부터 보습까지 간깐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디스트리의 '아디스트리 맨 UV 쉴드'는 바르는 즉시 물방울 터지는 듯한 독특한 수분 질감이 열 받은 남성 피부에 수분을 보충한다. 또한 아디스트리 맨의 독점적인 더 마싱크 콤플렉스가 함유돼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제공한다.

랩시리즈는 수분 젤 크림인 '에이지 레스큐+ 워터-차지드 젤 크림'을 9월에 출시한다.

수분을 감싸는 보호막이 수분 장벽을 강화해 피부 건조함을 막고, 제품을 바르고 6~8분이 지나면 보호막 속 수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활력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녹차·크랜베리·블루베리·석류·포도씨 등 10가지 항산화 성분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불우청소년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이대목동병원, 9일부터 양천구청·GSK와 함께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서울 양천구, 다국적 제약사 GSK와 함께 '저소득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 접종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양천구 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은 드림스타트센터나 아동·청소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청소년 1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병원은 8월 9일 1차 접종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양천구 내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3개 기관은 지난 30일 오전 양천구청 5층 회의실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기탁식'을 가졌다.

/황재용기자 hsoul38@

열대야, 수면부족 해결 아이템은…

소리·향 등으로 숙면 유도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최고치에 달하는 요즘, 밤 중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까지 시작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경우 피로 누적은 물론 신체 불균형 현상으로 무기력증이 나타나 낮 동안의 생활에 지장을 준다. 또 수면부족은 비만, 우울증, 호르몬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활동량 체크부터 수면패턴 체크까지 해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밴드인 핏비트의 '플렉스'는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 수면 중 뒤척임, 깨어난 시간, 숙면 시간 등을 알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면 사이클을 체크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메이커 슬리머의 '수면 소리 발생 베개'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소리와 스피커를 내장한 스마트 베개다. 이 제품은 별도의 코드를 꽂을 필요가 없으며 9가지 서로 다른 자연의 소리를 담아 숙면을 유도한다. 베개 안에 스피커를 내장해 선명한 음질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어린이의 수면을 돕는 제품도 있다. 소아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각·청각·촉각을 활용한 수면용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클라우드비의 음향 완구 '잠자는 양'은 엄마의 심장박동, 빗소리 파도, 고래의 노래 등 4가지 사운드를 통해 아이의 수면을 유도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2~3시간 정도 향초를 켜 놓으면 습기를 제거하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 숙면에 도움이 된다. 향초 브랜드 양키캔들의 '오션스타'는 상쾌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긴장을 이완시키며 식욕감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샤워 후 은은한 향의 바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필로소피의 '러빙 그레이스 바디 에멀전'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산뜻한 네롤리 향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머스크 향으로 이뤄져 피로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돕는다.

또 아이마스크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다. 카오의 '메구리즘'은 10분 동안 40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일회용 아이 마스크다. 컴퓨터, 휴대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피로해진 눈을 따뜻한 증기로 마사지해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정혜원기자 h_jung@

metro entertainment E

| 미니앨범 'ME?' 발표 솔로 데뷔한 **핫펠트**

사랑·이별·꿈 이야기 담은 음반
비 오는 날 옷 벗고 비 맞는 것처럼
장르 경계·음악 제한 넘고 싶어

"제가 원하는 음악을 담아 재밌는 긴장감"

걸그룹 원더걸스의 멤버 예은(25)이 핫펠트(HA:TFELT)란 예명으로 첫 솔로 활동에 들어갔다. 핫펠트는 자신의 자작곡으로 가득 채운 첫 미니앨범 '미?(Me?)'를 31일 발표했다. 타이틀곡 '에인트 노바디'를 비롯해 '이어인 걸' '트루스' '본드' '뭐어에서 투게더' '피터팬' '다운' 등 총 7곡이 담겨있다. 원더걸스 예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솔로 활동을 앞두고 만난 핫펠트의 모습에서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권보람기자 ygs@metroseoul.co.kr

◆ **솔로 데뷔 어떻게 준비했다**

2011년부터 원더걸스로 활동할 당시 틈틈이 곡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다 박진영 PD님이 '네가 작곡을 작사·작곡한 앨범을 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전부터 준비한 앨범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오랜기간 품고 있던 자식을 내놓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정도. 이번 앨범에는 총 7곡이 실렸는데 비공개된 곡은 10곡 더 있어요.

◆ **작곡은 어떻게 시작했나**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원더걸스로 데뷔했어요. 특히 데뷔 직전에 멤버로 합류해 연습생 기간도 없었고, 어렸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적으로, 인성적으로 많이 성장했죠.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가사 쓰고 멜로디 쓰는 것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음악, 가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곡을 하게 됐죠. 원더걸스 노바디 앨범에 담긴 세임 아이러브 유를 발표하면서 회사에 작곡가로 계약도 했죠.

◆ **어떤 음악을 하고 싶나**

한가지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경계와 제한을 넘어 실험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요. 당시 상황에 따라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죠. 이번 앨범에는 사랑과 이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장르는 힙합 곡 작사부터 모던 락 성향의 발라드 곡까지 제가 앨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담았죠. 2, 3번 트랙은 사랑과 이별, 4번은 짝사랑, 5번은 원더걸스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죠. 덕분에 원더걸스 멤버들은 노래를 듣더니 모두 공감했죠.(웃음) 비오는 날 옷을 다 벗고 비맞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 **대중성 느껴지지 않는다**

화려한 사운드보다 기나 사운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때문에 박진영 PD님과 의견충돌이 많았죠. 세계 3차대전 같았죠.(웃음) 일단 타이틀곡 선정에서도 전쟁에 있었어요. 저는 3번 트랙(에인트 노바디)이 좋았는데 박진영 PD님은 유쾌하게 섹시함이 묻어나는 4번(본드) 트랙을 고집했죠. 저만의 자원이 다른 섹시를 보일 수 있다며 저는 싫다고 했죠. 섹시는 여성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섹시 콘셉트로 데뷔한다면 대중은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3번 트랙을 고집했죠.

◆ **박진영과 의견 충돌은 어디까지**

나이틀곡 선정에 이어 앨범 재킷 커버도 전쟁이었어요. 이건 결국 PD님 의견을 따라갔어요. PD님은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등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사진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PD님은 '싱어송라이터로서 네가 가진 눈빛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의 재킷이 나왔어요. 마지막 전쟁은 이름이었는데 예은이 아닌 핫펠트로 앨범을 내게 된 것에 저는 후회 없어요.

◆ **음악 무대도 달라지다**

음악 방송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노래하는 무대와 안무로 노래를 들어가는 무대를 준비했죠. 포인트는 바로 현대무용이죠. 음악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안무가 아닌 현대무용을 접목해 노래가 담고 있는 느낌을 표현했어요. 데뷔 첫 주는 안무-스토리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 **앞으로 원더걸스 활동은**

저에게 원더걸스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으로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숙소에서 만나면 같이 음악도 듣고 곡 작업도 하고 있어요. 유빈 언니 혜림이는 랩 따야김을 하고 있어요. 원더걸스 활동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늘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자인/박은지

'괜찮아 사랑이야' 심리 치료법 '눈길'

"대사가 민망하다" "물란 척한다"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이하 '괜사')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민망'과 '실제', '글'과 '핫'의 차이는 한 끗이다. 작품 속 장재열(조인성)의 대사처럼 "섹스는 섹스일 뿐"이며 "쉰기 그림도 그림일 뿐"이다. '괜사'는 지상파 금기어를 거감 없이 말한다. 다만 "편견을 깨기 위한 포장지로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다는 노희경 작가의 의도가 자극적인 단어에 의해 가려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괜사'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 명성은 높지만 저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장재열은 추리 소설 작가이자 라디오 DJ지만 강박증이 있다. 집의 구도, 수건과 가구 색깔이 정갈하다. 정신과 의사인 지해수(공효진)는 섹스 공포증이 있다. 20년 이상 엄마의 불륜을 본 그는 남성과의 잠자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개업의인 조동민(성동일)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들은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마음 속 상처가 있다. 현실과 다른 점은 비정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 상처를 감춘 채 살아 가는 현실의 단면을 역설한다는 분석이다.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지티엔터테인먼트, CJ E&M 제공

치부 공유 치유…선정성 논란 '사랑'으로 극복할까?

작품의 제목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독이고 있다. 위로의 대상이 남녀 주인공이라면 치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3회(30일) 장재열과 지해수는 입맞춤했다. 사랑이 시작된 것. 관계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 수많은 상상을 한다는 지해수에게 장재열은 "별 거 없다"며 가슴 뽀뽀를 했다. 지해수와 말처럼 장재열의 강박증은 "여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아야" 개결되는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해수에게 장재열은 최선의 처방이 아닐까? 장재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포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해수를 통해 (증상이) 강박증을 고칠 수 있나. 치부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괜사'가 담아 낼 로맨스다.

선정성은 매회 논란이다. 등장인물의 대사 처리와 화면 연출이 짧은 호흡으로 진행된다. '괜사'가 짧고 굵게 보이는 이유다. 몇몇 금기어가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작품을 연출한 김규태 PD는 "유쾌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숨겨져 있다"며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로맨스와 기획의도가 어우러져 '괜찮아 사랑이야'라고 위로할 수 있을 지는 지켜 볼 부분이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2막 수위 세서 영화 같을 것"

'끝없는 사랑' 청춘들 본격 복수 야망 드러내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출연진이 2막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한광훈(류수영)은 13회(내달 2일) 예고 영상에서 사랑대신 권력을 선택했고 연인 서인애(황정음)와 이별했다. 서인애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면서 극은 새로운 전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탄현 SBS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 간담회에서 황정음은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자아를 잃어버린다"며 "복수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간다. 작품의 수위가 세서 영화 같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 중 서인애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한광철 역의 정경호는 "지고 지순한 사랑을 이어갈 것"이라며 "연인, 검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대처하는 모습이 비쳐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수영은 이날 "현재 인물들은 20대 초반이지만 이제 성장한다"며 "단순히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아닌 연쟁, 출생의 비밀, 명예욕이 수이게 된다"고 복합적인 감정을 그려낼 것을 예고 했다. 류수영은 서인애의 첫사랑이지만 야심가로 변하는 한광훈을 연기 중이다.

작품에서 여장부 카리스마를 보이고 있는 심혜진은 "정제욕이 강한 인물이다"며 "굴곡은 있지만 절대 몰락하지 않고 가를 쓰고 올라간다. 그 과정이 흥미롭다"고 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남편을 총리로 만들며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맨베린으로 분했다. 살인도 서슴지 않아 감철 나비로 불리며 서인애와 대립한다.

맨베린의 곁을 지키는 킹 메이커 박영타 역의 정웅인은 "관전 포인트는 민 여사와의 관계"라며 "숨겨 놓은 자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광철과 새로운 거래를 하고 대권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 지를 고민한다. 본격적으로 야망을 이루려고 달린다"고 덧붙였다.

'끝없는 사랑'은 70년대부터 80~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을 다룬다. /전효진기자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정경호(왼쪽)·황정음·류수영 SBS 제공

" '마마' 출연 인생에 큰 의미"

송윤아 6년 공백 깨고 시한부 미혼모 연기

배우 송윤아(사진)가 6년 만에 MBC 새 주말드라마 '마마'(8월 2일 첫 방송)로 돌아온다.

31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마마' 제작발표회에서 송윤아는 "'마마'를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저에게 인연처럼 다가온 작품"이라고 밝혔다.

'마마'에서 미혼모 한승희 역을 맡은 송윤아는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역할을 했었는데 진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엔 처음 맡은 엄마 역할"이라며 "결혼 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공백기를 가졌는데 '마마'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하두가 불안하다"며 "실제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보니 연기할 때 기술적인 만을 떠나 마음 표현 하나만큼은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극중 한승희 아들의 생부 문태주 역을 맡은 정준호는 "송윤아와는 MBC 드라마 '왕초' 때 신인으로 처음 만나 이제 각자 아이 엄마·아빠가 돼 다시 만났다"며 "과일도 더 익어야 맛있다고 하더라. 세월이 많이 지나 연륜이 쌓여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성숙해진 송윤아는 연기할 때 정말 편해 보인다"고 칭찬했다.

'마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혼모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가족을 만들어주려 생부를 찾아간다는 다소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엔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된 여자들의 우정을 그릴 예정이다. 극중 문태주의 아내인 서지은(문정희)과 우정을 쌓는 설정에 대해 송윤아는 "마치 셈타 듯 촬영 중이다. 다행히도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며 "힘들 때 제가 힘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들과 언니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지민기자

모두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
ALL FOR ONE, ONE FOR ALL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
조선낭만활극
명품 드라마 <나인>의 콤비 김병수 연출 | 송재정 극본
8월 17일 [일] 첫 방송! tvN

JYJ, 더 커진 초대형 팬 서비스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2만여 한·일 팬에게 초대형 서비스를 한다.

JYJ는 31일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팬 박람회 '2014 멤버십 위크'를 개최했다. '멤버십 위크'는 팬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무료 행사로 2012년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예년(3000평)보다 확대(5000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9월 3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JYJ 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꾸몄다. JYJ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새 앨범의 뮤직비디오와 재킷 촬영 세트장, 그동안 공연·뮤직비디오 등에서 선보였던 의상 600여점을 전시한 드레스룸 등 JYJ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전시장 내 극장에서는 멤버들의 근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멤버를 배경으로 스티커 사진을 찍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관련 잡지도 열람할 수 있다.

JYJ 멤버십 위크는 2012년 7024명의 일본 팬이 관람해 단일 행사로는 최다 외국인 입국 기록을 세웠다.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멤버십 정회원이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팬미팅은 당첨된 인원만 참가 가능하다. 올해도 일본 팬 4000명을 포함해 약 2만여명의 팬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 개막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재중은 "팬들이 감탄할 공간보다는 처음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행사를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고맙다.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팬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준수는 "3번째 하는 행사지만 처음과 같은 마음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팬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해 멤버십 위크를 준비했다.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 코스를 준비했으니 즐겨달라"고 말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최대한 팬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할까 고민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팬이 함께 관람하며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그룹 JYJ가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JYJ 멤버십 위크' 개막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김준수 왼쪽부터, 김재중, 박유천. /연합뉴스

'멤버십 위크' 대형 전시장 한·일 팬 2만명 관람

이특 컴백 '슈퍼쇼6' 티켓 전쟁 예고

9월 개최 · 7일 예매 시작

슈퍼주니어(사진)가 2년 6개월 만에 리더 이특이 컴백하는 월드투어 '슈퍼쇼6'를 진행한다.

슈퍼주니어는 9월 20~2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슈퍼쇼6'를 개최하고 다채로운 개성과 매력을 보여준다. 티켓 예매는 8월 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예매사이트 G마켓에서 한다.

'슈퍼쇼6'에는 지난 29일 제대한 리더 이특도 참여한다. 이특은 2012년 5월 '슈퍼쇼4' 서울 앙코르 공연 이후 2년 4개월만에 슈퍼주니어 단독 콘서트 무대에 함께해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을 전망이다.

'슈퍼쇼6'는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태국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135만 관객을 동원하며 글로벌 흥행 콘서트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에도 팬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새 음반 작업에도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황찬성 한중 공동 영화 출연

그룹 2PM 멤버 황찬성(사진)이 한중 공동 제작 영화에 특별 출연한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31일 "JYP 픽쳐스와 중국동방연예그룹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에 황찬성이 지오 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영화 '아이 워너 홀드 유어 핸드'는 사람들의 기적 같은 만남, 그 안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휴먼 드라마다.

지오는 한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년 아이돌 스타즈의 막내 멤버다. 작곡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도 하지만, 4차원적인 생각과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팀 내 트러블 메이커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이다.

황찬성은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KBS '정글피쉬', MBC '7급 공무원', KBS 드라마 스페셜 '당신의 누아르', 영화 '레드카펫' 등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했다. /장병호기자 yeeeo@

평일 예능 강자 JTBC 주말도 장악?

보스와의 동침 20대 호응 출연자 섭외 차별화 선택

종합편성채널 JTBC가 주말 예능 시청률 사냥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썰전' '마녀사냥' 으로 평일 예능은 재밌지고 있는 JTBC는 토요일 오후 시간대 새 예능프로그램을 줄줄이 편성했다. 31일 JTBC 사옥에서 열린 '보스와의 동침' 기자간담회에서 은희용 CP는 "JTBC에서 '보스와의 동침'을 론칭하게 된 이유는 주말 예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토요일에 신경 썼다"며 "'보스와의 동침'을 시작으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비든싱어3'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띠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첫 선을 보인 '보스와의 동침'은 김구라·데프콘·광희 세 MC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리더와 1박2일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게스트 쇼다.

치열한 주말 오후 시간대에 성과를 거두기엔 3명의 MC가 약하다는 지적에 엄경선 PD는 "성공한 리더에 대해 세대별로 다른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조합으로 20대 광희, 30대 데프콘, 40대 김구라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설가 김구라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광희 역시 의외로 직설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 데프콘은 두 사람 사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캐스팅에 흡족해 했다.

첫 회 시청률(0.8% 닐슨코리아)과 관련해 김구라는 "지상파 인기 주말드라마와 겹치 시간대가 불리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편이 방송된 직후 주목받은 건 사실이다"며 "젊은 층은 공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 시장님 편은 20대 남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스와의 동침'은 첫 회 게스트 박원순 시장에 이어 뽀로로를 만든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쟁쟁한 인사들이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

출연자 섭외 비결에 대해 엄 PD는 "오직 프로그램 기획안으로만 섭외한 게 통한 것 같다"며 "정계계 인사는 물론 연예인 스포츠스타 예술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에게 출연 요청을 했더니 대부분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일 오후 8시25분에 방송되는 '보스와의 동침' 2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2편이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

JTBC '보스와의 동침' 1회 박원순 서울시장 편. 왼쪽부터 황광희 데프콘 박원순 시장 김구라 /JTBC

"최승현 강렬 눈빛 대체불가"

'타짜2' 강형철 감독 캐스팅 이유 밝혀

"대길은 초짜에서 타짜로, 그리고 신의 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속에서 꿰이지 않고 리드를 해 나가야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강렬한 눈빛을 지닌 배우가 연기하길 바랐다."

강형철 감독이 신작 '타짜-신의 손'(이하 '타짜2')에서 배우 최승현(사진)을 주인공 대길 역에 캐스팅한 이유를 밝혔다.

'타짜2'는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최승현)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타짜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2006년 개봉한 '타짜'의 속편으로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강 감독은 그 동안 '과속스캔들'과 '써니'를 통해 박보영, 심은경, 강소라 등 보석 같은 배우들을 발굴해왔다. '타짜2'에서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이자 배우인 최승현을 주연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강 감독은 "최승현은 대길 캐스팅에 있어 다른 배우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대체불가능한 최고의 배우였다. 역할에 대한 완벽한 몰입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겉이 있는 감정 연기를 잘 해냈다. 배우 최승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감을 드러냈다.

선배 배우들도 최승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작 '타짜'에 이어 8년 만에 고광렬로 돌아온 유해진은 "최승현과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느낌이 정말 좋았다. 그것이 그대로 연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짱동식 역의 곽도원도 "큰 역할이다. 선배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컸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줘 고마웠다"고 했다.

'타짜2'는 오는 9월 초 추석 시즌에 개봉한다.

/정성호기자 aelan@metroseoul.co.kr

"고전영화 소중함 전해요"

권율·한예리 영상자료원 홍보대사 위촉

배우 권율(왼쪽 사진)·한예리(오른쪽)가 한국영상자료원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두 사람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상암동 시네마테크KOFA에서 한국영상자료원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체결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와 영상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는 문화서비스 공공기관이다. 1974년 1월 설립돼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한국영화 수집과 보존에 힘쓴 결과 1970년대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영화 필름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대중가요사 50년을 정리한 '가요반세기'(감독 박금수·1968년), 흑백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감독 김수용·1965년) 등 영화사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미약한 편이다.

권율·한예리는 한국영상자료원 홍보대사를 맡아 우리영화 발굴과 복원 사업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 고전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젊은 관객들에게 한국영화가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잊혀진 고전 걸작을 재발견하는 중요성을 널리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 매니지먼트로서 영상의 보존·발굴에 힘쓰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한국영상자료원 사업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율은 드라마 '연애의 발견'으로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었으며 최근에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 역으로 열연했다. 한예리는 영상자료원 창립 40주년 기념 단편영화 '아카이브의 유령들'에 출연한 바 있다. 다음달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해무'에서 조선족 처녀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다.

/정성호기자

곽도원·황정민·천우희 '곡성' 열연

나홍진 감독 "완벽한 캐스팅" 신뢰 드러내

'추격자' '황해'에 이은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 '곡성'이 배우 곽도원, 황정민, 천우희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곡성'은 시골 마을의 기이한 소문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영화. 곽도원은 마을 경찰 종구 역을, 황정민은 무속인 일광 역을, 천우희는 묘령의 무명 역을 맡았다.

나홍진 감독은 "'곡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들을 만났다. 연기력에 있어 최고로 인정받은 배우들이다. 각 캐릭터의 이미지가 배우들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배우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배우들의 캐스팅 이유도 공개됐다. '황해'에 이어 다시 만난 곽도원에 대해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황해'에서의 교감을 잊을 수 없다. 그와 다시 촬영할 것을 예감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황정민을 "선배님의 필모이며 살아 꿈틀거리는 느낌을 '곡성'에 녹여내고 싶었다. 스펙트럼이 넓은 캐릭터 일광 역에는 그가 유일한 배우다"라고 밝혔다.

홍일점인 천우희를 "리딩을 하는 모습에 매료됐다. 캐릭터를 가지고 놀 줄 아는 두려움을 모르는 배우다"라고 평했다.

'곡성'은 현재 촬영 준비 중이며 하반기 크랭크인해 내년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정성호기자

곽도원 황정민 천우희

벤자민 버튼 만든 기술 상륙

美 특수분장 전문가 그렉 캐놈 '두근두근 내 인생' 참여

세계적인 특수 분장 전문가인 그렉 캐놈(사진)이 김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에 참여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원작은 선천성 조로증으로 16세 나이에 80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 아름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도 선천성 조로증의 표현이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특수 분장 전문가 그렉 캐놈과 함께 심혈을 기울였다.

그렉 캐놈은 영화 '드라큘라' '미세스 다웃파이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3회 수상했으며 기술공로상까지 받은 특수 분장 세계 최고 실력자다. 특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는 브래드 피트를 80대 노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꿔놓아 화제를 모았다.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극중 아름이의 생생한 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최초로 도입됐던 실리콘 소재의 얇은 마스크를 사용했다. 그렉 캐놈은 "배우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 나이 든 분장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보통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분장을 할 때는 보형물을 더 두껍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일종의 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스태프들은 그렉 캐놈으로부터 다양한 분장 기술을 전수받아 촬영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30세 얼굴을 지닌 16세 소년 아름이의 모습을 스크린에 완벽히 그려냈다. 그렉 캐놈은 "수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들을 사용했다.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영화가 요구하는 나이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관객들도 영화 속 아름이에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강동원·송혜교가 주연을 맡았으며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

/정성호기자

'세계 제2의 피폭국가' 한국

권기봉의 도시산책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이왕이면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고 있다. 일본 여행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조심하면 방사능 피폭은 나의 일이 아니며 나아가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합천 평화의 집' 서울사무국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보통 '피폭자'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주민들이나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미군의 원폭을 맞은 사람들 혹은 체르노빌 원전 피해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피폭자가 그곳에만 있는 건 아니다. 태평양 한복판의 비키니섬에도 냉전시절 서방선진국들의 핵실험 때 방사능 먼지를 뒤집어 쓴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곳, 경남 합천군에도 적잖은 수의 피폭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끌려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다가 피폭당한 이들과 그들이 낳은 2~3세 후손들이다. 원폭 투하 당시 전체 피폭자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7만 명 정도가 피폭됐을 만큼,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한 피폭 생존자들의 정확한 규모는 커녕 실태조차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원폭국가인 일본은 특별조치법이나 원폭의료법, 피폭자원호법 등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구제대상을 일본인으로만 한정했고, 지금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보다 못한 사회운동가와 종교인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지난 2010년 피폭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자 '합천 평화의 집'을 세웠다.

피폭을 바다 건너 일이라 생각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야말로 세계 제2의 피폭국가이며 동시에 피폭 문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설계수명을 넘겨서까지 가동 중인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관련 뉴스를 쉬이 흘려듣지 못하는 이유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야 합니다

1				6		3		2
			2			1		6
		7	9				8	
			8			4	5	
9				4				3
	4	8			7			
	5				9	7		
6		3			2			
7		9		1				5

	2	5		4				
				8			3	5
	1	4	6	5	9			
	4	6						7
1						8	2	
			8	3	1	6	9	
2	9			7				
				9		7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시 스도쿠 리미티드 (아이를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 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행정고시 도전 중인데 잘 될까요
처가 덕이 두텁고 3급까지 가능

Q

해아치 남자 91년 4월 4일 미시 (음력)

사주 속으로를 애독하며 저는 전에 몇 번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의뢰하여 많은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조카의 앞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직으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 공복으로 헌신하고 싶다고 하니 그대로 잘 될 는지 또는 하나의 꿈에 그칠 것인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할 듯고 심미가 자꾸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일류대교는 아니지만 정치 외교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과 같은 진로를 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과연 잘 될 까요.

A

조카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형상으로 의지가 굳고 강인함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갑진(甲辰) 일주라서 청룡은 성질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여 조화를 무리므로 추진하는 재주도 비상하다 속성속패(速成速敗)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하여 관인상생(官印相生)하니 관료로 공직생활인 동량지재(棟梁之材)로서 다른데와 돋보기 할 만한 재목(材木)이라는 뜻인데 한 집이니 훌륭한 인재(人材)를 일컫습니다. 50대까지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재력도 갖추게 되고 50대 후반에는 3급 이상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사주를 설명하자면 갑목 사주는 필히 경금(庚金)이라는 도끼가 있어야 하며 물에서 불을 지필 수 있는 정화(丁火)를 맞아들여야 빛이 나게 되고 좋습니다. 조카의 경우 처가덕의 덕이 두텁고 일생 안락하고 자손에 번창하는 길명 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였는데 처성백호(妻星白虎)가 배우자 자리에 들어 있는 저에게 수심이 많고 건강 문제로 처가 고생 할 수는 있습니다. 직업이란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종사하는 일이며 직업적성은 당사자의 성격과 특징에 하는 일과 잘 맞아서 일의 결과인 업적이 좋아야 합니다. 직업적성이 맞지 않으면 업적이 신통치지 않고 당사자의 직무만족도도 떨어져서 일의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생의 활기를 잃게 됩니다. 타인에게 뒤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해내는 금여(金輿)로 두분이 좋게 됩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얘기가 될지 모르나 공무원으로서 이성과의 문제로 말썽이 많아 옷을 벗는 사람이 많으므로 참고하여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일 (음 7월 6일) 김학수 인생상담

48년생 가족 간의 대화 조심할 것. 60년생 마음먹은 일 실천해도 무방하다. 72년생 동료와 다투지 않도록 언행 조심~ 84년생 주말 데이트 계획에 설렌다.

49년생 결정한 일 번복하면 후회한다. 61년생 이심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할 것. 73년생 배우자 의견 무시하면 잃는 게 많다. 85년생 상사의 칭찬에 기분 좋은 하루~

50년생 배우자 의견 수용하면 만사형통~ 62년생 바라던 일은 드디어 이뤄진다. 74년생 애인한 일일수록 의사표현 분명히 할 것. 86년생 직분 충실하면 웃는다.

51년생 심심할 정도로 조용하다. 63년생 좋은 일엔 손해 보더라도 동참하라. 75년생 작업여지는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87년생 가끔은 혼자도 괜찮으니 나답게 일해라.

52년생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볼 것. 64년생 기다리면 소식은 듣는다. 76년생 심사가 뒤틀린 배우자 잘 다독여라. 88년생 거울의 매화 같은 정산이 필요하다.

53년생 남의 집 방문은 불청객이 된다. 65년생 조작을 위해선 적과 이제동무처럼. 77년생 일에 몰입하나 뭘도 나고 실적도 오른다. 89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조심~

42년생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라. 54년생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결과 좋다. 66년생 영업사원은 서둘러 문전박대 않도록~ 78년생 직장인은 좋은 일에 이름 거론된다.

43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55년생 내 생각만 고집 않고 공부 좀 하는 게 유익~ 67년생 여동간의 자신이 미쿤다. 79년생 속이 상해도 밥에 들직구 날리지 말라.

44년생 미한 일은 한대로 풀어라. 56년생 적절한 일은 전화위복 된다. 68년생 재내에 부의 마음림보다 희망 대물림될 것. 80년생 사람 많이 만나면 새 길이 눈뜬다.

45년생 서두르면 김연이 설에 속는다. 57년생 장사하는 사람은 수익이 쑥~ 69년생 공부에 너무 집착하면 정신만 피곤하다. 81년생 길한 운기에 있어 잘 풀려 이로~

46년생 더워해도 정도 지켜라. 58년생 준비 안 되어도 순리에 따르면 무리가 없다. 70년생 기다리기 커리 실망도 커니 마음 비워라. 8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 거둔다.

47년생 온 가족이 모여 즐겁다. 59년생 쉬운 일만 하려는 자세부터 버려라. 71년생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 보인다. 83년생 해묵은 근심은 눈녹듯 사라진다.

'13승 사냥' 류현진 "와다 맞짱 뜨자"

5일 휴식 후 3일 등판 한·일 투수전

류현진(27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사진)이 한·일 투수전에서 13승에 도전한다.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당초 선발 일정에서 하루 늦춘 8월 3일 오전 10시1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등판한다.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굳히기 위해 에이스 3인방인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 류현진의 등판을 극대화하는 일정을 세웠지만 기존 로테이션대로 댄 해런을 2일 등판시키기로 했다. 대신 류현진에게 5일 휴식을 주며 컨디션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5일 휴식 후 등판했을 때 평균자책점이 2.80으로 4일 휴식했을 때(평균자책점 3.68)보다 훨씬 좋았다.

류현진의 3일 등판이 확정되면서 한·일 투수 선발 맞대결이 성사됐다. 컵스는 3일 선발투수로 좌완 와다 쓰요시(33)를 예고했다. 와다는 일본에서 2011년까지 9시즌 동안 107승(61패)을 거두며 일본프로야구 최고 좌완으로 활약했다. 2003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2010년에는 17승 8패로 다승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평균 시속 145㎞ 내외의 평범한 직구를 던지지만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제구력이 뛰어나다.

와다는 일본 국가대표로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했다. 2006년 WBC에서는 우승,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아테네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0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결선리그 한국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한국의 올림픽 출전권을 빼앗은 바 있다. 베이징올림픽 예선 풀리그에서는 한국전에서 7회 이대호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했다.

2012 시즌을 앞두고 진출한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예전과 같은 활약을 펴지 못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했다가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듭하다 지난해 컵스로 옮겼다. 올해 마이너리그 트리플A 19경기에 등판해 10승 6패, 평균자책점 2.77을 기록했다. 7월 9일 신시내티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 세 차례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외국인 3명 압축

제2의 히딩크 나올까?"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후임 대표팀 사령탑으로 외국인 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후보군은 3명으로 좁혀졌다.

이용수 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첫 위원회를 마친 뒤 새 감독의 기준은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해 후보군을 추린 결과 3명의 감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이들 3명 모두 외국인 감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필두로 새로 꾸려진 위원회는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첫 회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새 사령탑 선임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우선 차기 감독을 내국인으로 할지 외국인으로 할지를 놓고 먼저 의견을 나눴으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 6명의 의견이 내국인 감독 3명, 외국인 감독 3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국내 17명과 외국인 30명의 후보군을 놓고 8가지의 요건을 정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한 결과 3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추렸고 이들 모두 외국인이었다.

기술위가 내세운 주요 요건은 아시안컵·유럽축구선수권(유로) 등 대륙별 선수권대회 지휘 경험과 월드컵 예선 경험, 월드컵 본선 16강 이상의 경험이 있는지 등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인 감독 한 명도 요건들을 충족했으나 기술위 논의 결과 이번에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협회가 3명의 외국인 감독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 감독은 2015 호주 아시안컵에 이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까지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

/김봉진기자 ysw@

추신수 구로다 상대 9경기 만에 득점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2·사진)가 구로다 히로키를 상대로 9경기만에 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추신수는 31일 미국 텍사스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종전 0.240를 유지했다.

전날 5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1회 팀이 0-1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 선발 구로다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뽑아내며 출루했다. 이후 2번 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좌익 선상 2루타 때 홈으로 쇄도해 동점 득점을 올렸다. 21일 양키스와의 경기 이래 9일 만에 시즌 49번째 득점을 거둬들였다.

2회에는 1사에서는 초구에 기습번트를 시도했지만 타구가 투수 구로다에 잡으로 향하면서 아웃되고 말았다. 남은 타석에서는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텍사스는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3-2로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다.

추신수는 하루 쉰 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8월 1~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4~6일), 휴스턴 애스트로스(8~10일)와 차례로 방문 경기에서 격돌한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31일)

■ 목동

한화	040	000	230	9
넥센	000	310	103	8

[illegible]

■ 대구

LG	000	120	100	4
삼성	120	200	30X	8

[illegible]

■ 사직

두산	000	000	111	3
롯데	310	324	00X	13

[illegible]

■ 마산

KIA	000	001	000	1
NC	350	000	01X	9

[illegible]

스완지시티 기성용 재계약 협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기성용(25·사진)과 다음주쯤 재계약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영국 웨일스온라인은 31일 개리 몽크 스완지시티 감독이 "다음 주 기성용과 협상할 것"이라며 "기성용을 구단에 잔류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선했다.

기성용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다 지난 2012년 스완지시티로 이적할 당시 구단 사상 최고 이적료인 600만 파운드(약 104억원)에 사인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선덜랜드로 임대돼 활약했으며 스완지시티와의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있다.

몽크 감독은 "기성용에게 그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이며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해줬다"며 "기성용이 아직 진정한 스완지시티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에게 진짜 스완지시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에게 재계약을 제안하고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음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기성용을 잔류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완지시티의 구애는 월드컵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기성용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그의 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봉진기자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